

2008 제주 문화연감

# 북악 / 전통예술

## 2007 제주국악과 전통예술계의 발자취

### I. 머리말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공연예술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기존의 장르 분류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진 공연예술행사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제주 특별자치도내 국악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성악·기악·타악·무용·연희 등으로 국악의 갈래를 나누던 기존의 장르 분류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퓨전, 크로스오버, 록컨서트 형태의 다중적인 공연예술행사와 장소지향성 공연행사, 포괄적인 체험교육행사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국악과 전통예술의 개념이 무색해지고 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국악계 역시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공연예술행사가 대중을 이뤘다. 전통예술공연이라고 해도 기존의 여러 장르가 함께 하는 형태가 압도적이었고, 장소지향성 행사들도 대체로 이같은 성격을 보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장르 분류 방식보다는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전통예술공연, 창작공연, 복합공연, 장소지향성 공연, 전수교육 및 경연대회, 도서출판 및 음반발표

## 2. 갈래별 현황 분석

### 가. 갈래의 분류

2007년도 제주국악계의 활동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전통예술 공연행사다. 기존의 성악·기악·타악·무용·연희 등으로 나뉘는 국악 고유의 장르들을 재현한 행사들이 이 속에 포함된다.

둘째, 개별 장르별로 독자적인 창작물을 선보이거나 여러 장르가 하나로 어울려 창작물을 만들어낸 행사들을 따로 분류해 '창작공연행사'로 본다. 사례에 따라 부분적인 창작이 가미된 공연행사들도 포함한다. 한편 창작공연물이라 하더라도 2007년 이전에 공연된 작품들은 제외한다.

셋째, 기존의 고유장르들이 축제의 형식으로 꾸며져 종합적으로 공연된 행사와 국악과 양악이 크로스오버를 시도한 형식의 공연행사들을 한데 묶어 '복합공연행사'로 분류한다.

넷째, 문화예술 소의 계층과 지역을 순회하며 치러지는 공연예술행사와 일반적인 공연장을 벗어나 장소성을 부각시킨 공연행사들의 경우는 '장소지향성 공연행사'로 나눈다.

다섯째, 국악의 대중적 보급을 위해 펼쳐지는 대중강습 및 전수교육, 각종 체험행사들과 더불어 국악과 관련한 각종 경연대회를 하나로 묶어 '전수교육 및 경연대회'로 분류한다.

여섯째, 대체로 기간의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악과 전통예술을 망라하는 도서의 출간이나 음반 발표 등의 기록출판물들을 하나의 분류항목으로 지정해 '도서출판 및 음반발표'로 나눈다.

갈 래	공연 및 행사 건수	백분율(%)
창작공연	5	12.5
복합공연	2	5
장소지향성 공연	5	12.5
전수교육 및 경연대회	10	25
도서출판 및 음반발표	4	10
계	40	100

\* <표 1>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공한 집계자료와 도내 일간지의 기사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부분적인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표 1>의 집계는 전체 행사의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여섯 항목으로 분류된 각각의 개별행사들의 공연 횟수는 이와 다르다. 이를테면 하나의 공연행사에 참가한 여러 단체별 공연 횟수를 감안한다면 100회를 훨씬 넘는다.

<표 1>의 집계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갈래별 공연 및 행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다. 전통예술 공연행사

제주특별자치도 국악계의 활동 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통예술 공연분야다. 주로 양식이 정연하고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르들의 재현을 위주로 하는 공연행사들이 압도적이다. 그 중에서도 성악과 타악, 종합공연이 매우 활발했다.

성악 분야에서 제주민요의 공연행사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제주동북민속예술단과 탐라민속예술단이 국립민속박물관이 주최하는 ‘우리민속한마

와 농악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호평을 받은 사례의 사물놀이 마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여성농악단의 ‘축제의 땅 춤추는 바람꽃 여성농악’이다. 여성국극과 더불어 20세기는 중반을 풍미하던 여성농악단의 출중한 기예를 선보이는 자리를 제주에서 마련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이외에도 사물놀이 마로의 정기공연을 비롯한 사물놀이 공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악과 무용, 연희 등의 분야는 종합적인 국악제에서 주로 선보였다. 숨비민속무용단, 백록민속예술단, 국민예술센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등 도내외의 국악인들이 대거 참가한 제1회 제주국악대공연이 처음으로 마련되어 성악과 타악에 편향된 제주국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색을 시도했다. 이 밖에도 제8회 탐라국악제, 제27회 대한민국 국악제 등이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 밖에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시연회,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의 ‘해설이 있는 국악사랑방-풍류 한마당’ 등이 제주전통문화의 대중화와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라. 창작공연행사

새로운 작품의 창작보다는 기존의 텍스트를 완벽히 소화하고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국악이 지닌 장르적 특성상 2007년 제주 국악계의 창작활동은 주로 종합적인 연희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흥익예술단의 ‘Feel 아리랑-시즌1’, 놀이패 한라산의 ‘영감놀이 광대굿’, 민요패 소리왓의 ‘정네의 놀래-나 놀래랑 산님영가라, 나 놀래랑 물 넘영가라’, 사물놀이 하나아트의 ‘신명(神明)-타악의 울림’, 동굴소리연구회와 제주소리연구소가 함께 한 ‘제주기 애랑’ 등이 그것이다.

흥익예술단이 상설공연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한 ‘Feel 아리랑-시즌1’은 전통적인 기

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고루한 옛노래로 치부되고 말 제주민요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고 있다.

사물놀이 하나야트의 '신명(神明)-타악의 울림'은 사물, 모듬북, 대고 등의 타악기와 각종 선율악기가 어우러진 퓨전타악을 선보였다. 다양한 음색을 지닌 타악기들의 합주와 무용, 퍼포먼스가 결합한 크로스오버 공연은 2007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기 애랑'은 익히 알려진 고전소설인 배비장전을 각색해 제주민요의 선율을 담은 가무악극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제주의 노동요가 지닌 양식적 특징인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형식을 잘 살려냈고, 제주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양악과 국악을 망라하는 출연진들의 호흡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 마. 복합공연행사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공연예술계의 전반적 기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다중공연방식을 띠는데, 전통예술공연, 창작공연 등도 점차 이같은 추세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복합공연행사를 독립적 항목으로 분류해 다루기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 장르의 재현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행사와 부분적이더라도 창작이 가미된 공연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합공연행사로 나누었다.

2007년도에 치러진 복합공연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해녀박물관이 주최한 제1회 해녀민속예술공연과 풍물굿패 신나라의 2007 토요일전통예술 한마당-신명으로의 초대를 들 수 있다.

해녀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치러진 제1회 해녀민속예술공연에서는 서순실 심방이 집전하는 '요왕맞이' 공연,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 '풍물굿패 신나라' 공연 등이 대안문화공간을 통해 선보였다.

패 두루나눔, 민요패 소리왓 등 도내외 국악인들이 참가했다. ‘우리소리의 신명’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풍물, 가야금, 판소리, 대동놀이가 공연되었다.

## 바. 장소지향성 공연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장소지향성 공연행사에 국악계의 움직임은 주로 성악, 타악 등 기존의 고유장르를 근간으로 대동놀이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요패 소리왓의 ‘농사의 신 자청비’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풍물굿패 신나락의 ‘2007 굿치러가세’,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세경놀이-땅 지킴이들네 이야기’,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다.

이 분야에서 민요패 소리왓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선 ‘농사의 신 자청비’는 앞풀이, 본공연, 뒤풀이의 세 마당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제주의 신화 ‘세경본풀이’를 소리판굿과 대동놀이에 결합시켰다. 구좌읍 송당리를 비롯한 도내 8개 마을을 순회하며 성황리에 공연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역시 제주 특유의 ‘설문대 할망’ 설화를 활용한 작품으로 전래놀이와 전래동요를 결합해 구성했다. ‘고사리 꿈썩’, ‘까마귀놀이’, ‘다리세기’ 등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래놀이를 되살린 공동체놀이를 만들어 제주영송학교를 비롯한 도내외의 장애아동교육시설을 순회하며 공연했다.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꽃춤, 태극무 등의 무용과 창부타령, 망건소리 등의 경기민요와 제주민요로 구성된 작품을 제주원광요양원을 비롯한 여러 곳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다. 한편 국악협회 서귀포지부는 ‘자연생태 탐방 및 국악예술 체험활동’을 주최해 자연속에서 국악의 정취를 만끽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풍물굿패 신나락이 마련한 ‘2007 굿치러가세’는 제주도 특유의 걸궁을 신나락 단원들

## 사. 전수교육 및 경연대회

이 분야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며 국악의 대중화라는 과제의 실현에 부심하는 부분이다. 이 속에는 전문적인 국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수교육활동과 각종 국악경연대회가 있다.

그런가 하면 대중적인 보급을 목적으로 워크샵과 강습회를 열거나 비전문인들의 경연대회를 마련하는 등 국악계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이것을 다시 전수교육과 경연대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전수교육과 대중보급활동

국악대중화를 위한 교육활동 중에 우선 살펴볼 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 특유의 전통예술들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해녀노래, 멸치후리는노래 등이 대중적인 저변확대에 나섰다.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는 ‘서우젓소리, 기메 제작 강습회’라는 타이틀로 예능보유자의 기메기전의 제작 시연과 교육, 이수자의 서우젓소리 강습을 7~8월 동안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상설적으로 운영했다.

해녀노래와 멸치후리는노래는 제주해녀박물관에서 각 분야의 예능보유자가 직접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는 달리 이미 1989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리 민요의 경우는 예능보유자가 사망한지 6년이 지나도 후계자 선정조차 못하고 전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각종 국악예술단체들이 마련한 교육활동이다. 민요패 소리왓이 제25회 여름민요교실, 제11회 어린이민요교실을 개최하며 민요의 보급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소리왓의 민요교실은 비단 제주의 창민요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요, 무



## 2) 각종 경연대회

제주도내 국악계의 경연대회는 주로 성악 분야에 집중된다. 물론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에서 펼쳐지는 민속예술 경연분야도 있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경연에 치우쳐 사후 전승활동을 보장하지 않아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7년 제주도내에서 펼쳐진 경연대회 중 주목할 만한 행사는 대한시조협회 서귀포 지회가 마련한 제3회 전국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와 민요패 소리왓의 제6회 제주창작국악동요제, 탐라문화제의 제24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국민요경창대회는 깊은 역사가 말해주듯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국악인들의 경합을 벌이는 마당으로 그동안 국악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냈다. 2007년도에도 일반부와 학생부 경연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제주창작국악동요제는 5회 때부터 경연방식을 해소해 비경연으로 진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도 9개의 새로운 창작국악동요가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잔치마당을 펼쳤다.

이 밖에 2007년에는 도내의 국악인들의 타 시도를 비롯한 전국단위의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제7회 전국국악예술경연대회 무용부문과 민요부문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을 휩쓸었다. 백록민속예술단 한춘자 단장은 제3회 국악예술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 아. 도서 출판 및 음반 발표

전국적인 수준에 견주어 볼 때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이 분야다. 다채로운 공연예술활동은 날로 활성화되는 데 비해 제주도의 국악과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나 국악인들의 음반 발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에도 2007년도에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우선 창민요 부문 제

예능인이 음반발표와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학술적인 연구의 기록출판이다. 2007년도에는 제주민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쏟아졌다.

먼저 조영배의 『한국의 민요 아름다운 민중의 소리』(민속원)는 한국의 민요일반을 총론적으로 다루며 정의, 분류, 지역성 등을 새롭게 밝히는가 하면 민요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채록과 채보의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냈다. 특히 그가 주목한 부분은 제주민요와 한국민요의 관계인데, 다른 지방의 민요와 제주민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제주민요의 특이성을 찾아냈고, 나아가 일본민요와도 견주어보며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를 시도했다. 향후 일본, 중국 등의 민요와 비교연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제주민요가 제주도민의 생업현장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향유하고 전승하는 제주사람들의 의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서 2종이다.

변성구의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는 노동요를 중심으로 생업현장에서 민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집중했다. 특히 사설을 중심으로 민요가 지닌 가창방식과 율격 등을 세밀하게 살피며 제주민요 특유의 여음구의 의의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양영자의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동시에 출판되었다. 양영자는 제주민요에 반영된 제주인의 생활인식과 사상의식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노랫말과 가창방식에 나타난 희로애락의 감정표현과 자연을 경외시하는 제주인의 심성을 두루 살피며 전통적인 미의식에 접근하는 성과를 올렸다.

### 3. 평가와 전망

통예술이 육지부의 그것처럼 양식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자연풍토와 인문환경 조건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문화적 후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말이다. 대체로 민요가 제주도민의 전통적인 미의식과 서정을 반영하고 무속굿이 종합적인 예술양식으로 성장하며 다른 분야의 역할까지 한 것이다.

이런 탓에 오늘날 전통예술, 또는 민속이라고 부르는 보편적인 국악의 개념에 합치될 수 있는 것은 민요뿐인 셈이다. 결국 민요분야의 왕성한 활동은 이같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디어와 교류의 발달로 모든 문화가 전국화되는 상황에서 조건을 이유로 민요에만 머무르는 것은 문화적 편향성을 낳게 한다. 물론 문화의 균질화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역성과 보편성이라는 문화적 균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사회의 제주문화가 지녔던 예술적 가치들을 복원하고, 오늘날에 맞게 새로운 변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악, 타악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악인들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다음으로 공연과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복합적인 행사가 강화되며 대중적인 저변을 크게 넓히고 있는 것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창작품의 생산이 매우 부족함을 들 수 있다.

국악이라는 장르가 전통적인 텍스트의 완벽한 해석과 재현에만 천착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낡은 사고다. 경우에 따라 정연한 양식을 중시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전통예술은 거듭 창조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중시한다. 195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경직된 전통문화정책의 결과가 국악계에 낡고 고루한 사고를 심어놓았고, 제주 국악계 또한 이런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우리 국악은 과거의 한계를 자성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한류라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같은 변화의 추세를 바라보며 제주 국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승에는 무관심하다. 전통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예술적 생산을 잇는 데에는 국악보다 유용한 것이 없다. 민요, 무가(巫歌), 무무(巫舞), 무악(巫樂) 등에 대한 국악계와 학술계의 공동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것의 성과를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제주의 신화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경우처럼 신화의 예술적 재현을 국악인의 공연예술로 개발한다면 이렇다 할 문화관광자원 하나 반듯한 게 없는 상황에서 서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2007년 제주 국악계의 전반적인 인상은 예년에도 그랬듯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거나 부침을 겪으며 전문성의 확보에는 미진했다. 한편으로 대중적인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크게 확대된 것은 큰 성과이기는 하지만 도민들로 하여금 국악을 내면화하는 기회의 제공보다 집객에 부심하는 대중추수주의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비지땀을 흘리는 제주의 국악인들에게 누구도 원론적인 비판을 일삼으며 분발을 촉구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다시피 응원과 격려, 지원과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2008 제주 문예연감

# 연 말

## 제주연극의 虛와 實

### 1. 2007년의 연극 공연 실태

#### 가. 도내 극단의 공연

##### 1) 연극제 공연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도내 극단의 연극 공연 양상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종 연극제에서의 공연이고 다른 하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관(자치단체, 공적 예술기관 포함)의 지원을 받아 행해지는 공연이다. 각종 연극제 공연도 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제주연극은 전폭적으로 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극단 자체에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연극이 희귀하다는 것은 도내 극단의 영세성을 나타내는 현상이며 질 높은 연극 공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서 수 만 명의 재일 동포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폐쇄 명령을 철회시킨 4·24 교육투쟁을 다룬 문제작이다. 또한, 제16회 제주연극제 및 제25회 전국연극제 도예선대회가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대극장(이하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하는 이 연극제는 극단 정낭의 「강신무」, 극단 가람의 「마술가게」, 극단 세이레의 「슬픔의 노래」 등 3개 극단이 참여했다. 이 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신무」의 등장인물 4명 중 3명을 다른 지역 배우로 충원함으로써 언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배우 기근에 허덕이는 제주 연극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한편, 제46회 탐라문화제 및 제14회 제주말 연극제의 일환으로 극단 무(巫)의 「서툰 사람들」이 10월 13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고 제16회 소극장 연극축제가 12월 한 달 동안 극단 세이레의 「배비장전」, 극단 정낭의 「뉘시터 전쟁」, 극단 가람의 「가시고기」, 극단 이어도의 「아름다운 사인(死因)」 등 4개 극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출품작 대부분이 여러 번 공연을 거친 것이어서 신선감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기존의 공연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아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왜 소극장 축제를 매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여겨진다.

연극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치러진 공연이 극단 세이레가 주관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세이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제주전국소극장 한마당이였다.

극단 세이레가 12월 1일 소극장 세이레아트센터를 개관하면서 개관 기념으로 자체 기획된 이 연극제에는 세이레의 「배비장전」을 비롯하여 육지부 극단인 미소의 「뒤집기 흥부전」, 새벽의 「드림 카테일」, 자계예술촌의 「창호 생각」, 소동의 「길 위에 서다」 등 다섯 개 작품이 선보였다.

기획 의도는 좋았으나 기획력 부족에 따른 관객 동원 실패로 극단 세이레는 1천만

## 2) 관의 지원을 받은 공연

###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공연된 작품은 극단 가람의 「뽕파전」(마라도 외 4곳 순회공연), 극단 정낭의 「강신무」(제주소년원 외 3곳), 세이레 어린이극장의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소규모 초등학교 10곳), 극단 세이레의 「배비장전」(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6곳),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세경놀이」(신촌리 마을회관 외 9곳) 등이었다.

### 2007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은 테러 제이의 「해남이의 그림일기」(11. 2.~3. 한라아트홀 대극장),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영감놀이」(8. 25.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놀이마당), 극단 정낭의 「배비장전」(9. 16.~10. 15. 제주해변공연장 등), 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6회 소극장 연극축제 등이다.

### 복권기금과 제주문예진흥기금의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역순회 문화프로그램으로 세이레어린이극장의 인형극 「알 이야기」와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전상놀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지원금은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된다. 세이레어린이극장의 「훨훨 간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은 작품이다.

## 3) 극단별 공연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도내 극단에서 공연한 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극단 가람이 「방울소리」, 「마술가게」, 「가시고기」 등 3편, 극단 정낭은 「배비장전」, 「뉘시터 전쟁」, 「강신무」 등 3편, 극단 세이레는 「길 위에 서다」, 「슬픔의 노래」, 「배비장전」 등 3편, 놀이패 한라산이 「영감놀이」, 「전상놀이」, 「헛묘」 등 3편, 세이레어린이극장은 「훨훨 간다」, 「알 이야기」, 「오즈의 마법사」 등 3편으로 대다수 극단이 연가 3편의 작품을 공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관의 지원으로 연간 3편의 공연을 소화한 극단의 눈물겨운 노력은 상찬할 만한 것이겠으나 과연 한 해 동안의 공연물 가운데서 관객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답변이 궁색해진다. ‘양이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보편 명제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관객들은 많은 연극을 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편이라도 연극다운 연극을 보기를 원하는 때문이다.

## 나. 극단 이외의 공연

### - 테러 제이, 기타

사전적 의미로 극단이라 함은 연극을 공연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테러제이(Terror J)의 경우, 거리극·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어서 극단이라기 보다는 연희단으로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테러제이의 정체성이 뭐냐고 확인했더니, 테러제이는 축제기획과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부설 자파리 연구소에서 연극을 제작한다고 했다. 엄밀히 말해서 연구소는 명칭 그대로 연구하는 곳이지 극단은 아니다. 테러제이의 공연을 이 항목에서 언급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테러제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5년 한국문예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수여하는 ‘올해의 예술상’(축제분야)을 수상하면서이다. 마음·연극·음악이 혼합된 「머리에 꽃을…」이란 거리예술제 작품이 수상작이었다. 이후 테러제이는 도내외 공연과 해외 공연까지 매우 다양하고 유니크한 활동을 펼쳐 왔다. 2007년 한 해 동안 테러제이는 하키어린이 국제공연예술축제(일본, 후쿠오카현)에 참가하여 아동극 「할머니의 낡은 창고」, 성인용 이미지극 「섬 이야기」를 공연하였고, 극단 소유 연극 전용극장인 간드락 소극장에서 아동극 「애들아 같이 놀자」, 「할머니의 낡은 창고」와 「섬 이야기」, 성인극 「악의 꽃」, 「어이그 저 귀것」을 공연하였다. 테러제이의 공연을 주목하게 되는

풀어냄으로써 제주의 소리, 가락, 언어, 신화를 아우른 된장 냄새가 물씬 나는 토속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제주연극의 지평을 확장하는 보람찬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극단 공연이 아니면서 매년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공연이 청소년 연극제이다. 한국연극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제주도연극교육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대회를 겸하고 있다.

제10회 제주청소년연극제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틀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다. 신성여고의 「시스터 액터」, 제주외국어고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대정여고의 「돼지사냥」, 한림고의 「서툰 사람들」 등 4개 고교가 참가했는데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한편 제주교사연극모임 책상밀락에서는 세 번째 정기공연 「모모」를 미예랑 소극장에서 올렸다. 「모모」는 김윤자, 이인구 등 책상밀락의 회원 교사 8명의 공동 창작으로 꾸며진 연극이다. 이 연극모임의 구성원들은 아마츄어지만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열정으로 학교 현장이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잘 형상화하고 있다.

## 다. 도외 극단의 공연

###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의 기획·초청 공연

도외 극단의 제주 공연 중 눈길을 끄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구 제주도 문예진흥원)의 기획·초청 공연이다. 초청공연 앞에 기획을 덧붙인 것은 아마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의 공연 담당자가 전국의 수 많은 공연물 가운데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초청했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판단된다.

초청작들을 살펴보면 극단 미추의 뮤지컬 「벽 속의 요정」, 파임커뮤니케이션즈의 연

품을 초청하여 도민들에게는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극인들에겐 신선한 자극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 2) 도내 극단의 초청 공연

놀이패 한라산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과 제주영상센터에서 난장굿 공연을 펼쳤다. 이 행사에 국내외 극단을 초청했는데 페루 비차마 극단의 「부재한 자들의 기억」, 전주 극단 누렁소의 인형극 「곱단 이」, 청주 극단 두레의 「아이고, 으이구」 등이 공연되었다.

한편 세이레어린이극장은 서울 신화극장의 「춘하추동 오늘이」를 초청하였고 극단 세이레의 초청공연(제1회 제주전국소극장 한마당)은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3) 언론기관 등의 초청 공연

제민일보가 초청한 극단 서울의 영어 뮤지컬 「춘향」이 문예회관에서 공연되었고 KC TV창사 12주년 기념으로 초청한 제주출신 탤런트 고두심이 주연한 「친정엄마」가 한라아트홀에서 공연되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소리극집단의 「엄청난 거짓말쟁이 척척 생겨」를 초청 공연하였다.

또한 제주도에 있는 공연기획사 팝콘이 초청한 뮤지컬 「그리스」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올려졌다.

## 4) 도외 극단의 원정 공연

초청 공연을 제외하고 육지부 극단이 제주에 와서 공연한 작품을 분류해 보면 대부분 어린이 뮤지컬 일색이다. 「미녀와 야수」(대영뮤지컬컴퍼니), 「피터팬」(극단 국민, 술이, 두부기획), 「피노키오」(극단 국민), 「난다난다니안다」(나루기획), 「로봇태권브이」(세

걸 입증하고 있으며 풀빵 찍어내듯이 뮤지컬을 제작하는 서울의 전문 뮤지컬 생산 공장(극단)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할 리 없다.

성인용 뮤지컬은 「사랑하면 춤을 춰라」(미르엔 컴퍼니), 「동물원」(뮤지컬컴퍼니 원), 「루나틱」(뮤지컬컴퍼니 원), 「도도」(뮤지컬컴퍼니 원), 「년센스」(뮤지컬컴퍼니 원), 「남경주 올댓 뮤지컬」(미르엔 컴퍼니), 「김종욱 찾기」(미르엔 컴퍼니) 등 7편으로 어린이 뮤지컬의 절반 수준인데 뮤지컬컴퍼니 원에서 4편, 미르엔 컴퍼니에서 3편을 분할 점유했다.

아동과 성인용을 불문하고 뮤지컬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정극은 단 한 편(관객모독)만이 공연돼 정극 불황을 넘어서서 침체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이밖에 어린이 인형극도 몇 편 선보였는데 「햇님 달님」(무지개 극단), 「꼬마 오즈」(소명기획), 「호랑이님 나가신다」(까치동) 등이 그것이다.

제주연극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도외극단을 초청하는 경우나 원정공연이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순기능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도민들은 예술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연극인들은 자극을 받아 더욱 분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기능은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제주연극을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 관객이 없는 제주연극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이다.

## 2. 2007년 제주 연극계의 이슈

2007년 한 해 동안에 제주 연극에서 특기할 사항은 소극장 2곳의 개관, 창단 20주년을 맞은 놀이패 한라산의 활동, 배우 윤미란의 민족광대상 수상 등이 될 것이다.

가운 교감이 이뤄지고 배우수업과 연기훈련의 장으로 활용되는 살아있는 연극관으로 연극인들의 땀과 눈물이 무대 곳곳에 배어있는 포근하고 아늑한 예술 공간이다. 1980년대 이후 제주에서는 수많은 소극장이 개관했다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자유무대, 다솜, 예인아트홀, 한얼, 하늘, 세이레, 수놓음……. 극단 세이레의 경우만 해도 1986년 작은무대 → 1993년 자유무대 → 2000년 세이레 소극장 → 2007년 세이레아트센터까지 장소를 달리하면서 네 번째나 소극장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재정 빈약, 관객 부족이 소극장 폐관 사유였다. 새로 문을 연 미예랑과 세이레아트센터는 생활예술 공간,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표방하고 있으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존의 간드락 소극장과 함께 이들 소극장이 제주연극 중흥의 불씨를 지피는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1987년 창단한 놀이패 한라산이 올해 성년을 맞았다. 놀이패 한라산은 첫 공연 「그날 이후」를 시작으로 「4월곳 한라산」, 「백조일손」, 「아버지를 밟다」 등 5백여 회에 이르는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4월곳 한라산」, 「아버지를 밟다」, 「4월곳 꽃놀림」은 전국 순회공연과 더불어 일본 공연을 통해 제주도 마당굿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놀이패 한라산은 연극을 통해 60년 전에 일어난 4·3의 실상은 무엇이며 교훈은 무엇인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고통스런 기억을 환기케 하고 책임을 자각케 하며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지향케 한다.

놀이패 한라산의 4·3탐구의 역사는 4·3사건진상규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4·3사건에 관한 담론의 형성과 의미 천착은 4·3사건관련 학술 서적 1천 권의 분량과 맞먹는 뜻 깊은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생각한다. 놀이패 한라산의 4·3연극은 어찌면 동어반복과 같은 유사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변주로 통렬하게 구현해 냄으로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으며 놀이패 한라산이 추구해온 4·3연극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은 1980년대 한때 관객이 일천 명에 육박하는 성황을 누렸으나

이처럼 거창하게 치른 것은 놀이패 한라산의 저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2007년 제주연극계의 경사는 놀이패 한라산의 간판 배우인 윤미란의 민족광대상 수상이다. 윤미란은 한국민족극운동협회가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북 성주에서 열었던 제20회 전국민족극한마당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91년 정공철이 민족광대상을 받은 이래 두 번째의 쾌거였다.

제주연극계의 또 하나의 경사는 강용준의 세 번째 희곡집 『파도에 길을 묻다』의 간행이다. 이 희곡집에 실린 희곡 7편은 주로 제주 역사나 설화 속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삼별초를 다룬 「섬 처녀 앵두」, 천지창조 신화를 다룬 「천지대왕」, 김만덕의 일대기를 다룬 「파도에게 길을 묻다」, 오돌또기 민요에 얽힌 설화와 이어도를 소재로 한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등이 대표작이다.

### 3. 제주연극의 虛와 實

어떤 문제의 연원을 캐어가다 보면 대개 사람과 돈의 문제로 귀착되기 일쑤다. 제주연극의 문제도 이러한 인식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성 싶다. 제주연극의 虛와 實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 접근법을 상정해 본다.

첫째,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연극은 전국 수준에 비해 그다지 뒤진 편이 아니다. 인구 30만의 제주시에 연극 전용 대극장이 2곳(문예회관, 한라아트홀)에다 학생문화원 등 공연 가능한 무대도 서너 곳이 있다. 연극 전용 소극장이 4곳(간드락, 미예랑, 세이레아트센터, 문예회관)이고 야외무대 2곳(문예회관 놀이마당, 탐동 해변공연장)이 있다.

1950~1980년대까지는 극장 대용으로 영화관, 예식장, 다방, 마을회관 등을 사용한 적도 있는데 이제 극장이 없어서 연극 못 한다는 소리는 못하게 됐다. 현재의 문제는 그릇(극장)은 있지만 그릇에 들어갈 내용(연극)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다. 연극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예술행정이나 지원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예산만 지원한다고 만사가 해결되지 않는다. 돈으로 예술을 살찌게 할 순 없는 법이다.

셋째, 휴먼웨어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연극은 낙제점이다. 우선 배우 기근 현상이다. 도내 각 극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 인력(현역배우)은 열 명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작품을 선정할 때 등장인물이 5인 이내인 작품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질 높은 공연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이다. 정규교육을 받았거나 제대로 훈련된 연출가가 적다는 것도 배우 기근에 못지 않는 문제점이다. 연극은 '배우의 예술' 이면서 동시에 '연출가의 예술' 이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탐라국 개국 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 혹자는 국제자유도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국제자유도시는 경제와 문화의 양 날개로 날아가는 파랑새이다. 문화에서 공연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주연극의 문제는 '나' 만의 문제이거나 '너' 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연극인은 물론이고 예술행정가와 언론, 사회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이들이 모두 협력하고 연대해서 제주연극 중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